“메시 같았다”…1골 2도움 ‘황금 왼발’ 이강인

18세, 한국 축구의 미래…‘형 같은 동생’ 한국 4강 견인

소속팀 발렌시아 설득 겨우 참가 조별리그부터 맹활약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에이스 이강인(18·발렌시아)이 1골 2도움의 원맨쇼를 앞세워 36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9일 새벽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의 비엘스코 비아와 경기장에서 펼쳐진 세네갈과 2019 FIFA U-20 월드컵 8강전에서 측면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의 U-20 대표팀 합류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강제 차출이 가능한 A매치와 달리 U-20 월드컵에 출전시키려면 선수의 소속 팀을 설득해야 한다. 차출에 소극적이던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는 FIFA U-20 월드컵 참가를 위한 한국대표팀 차출을 앞두고 ‘구단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시 등 필요하면 복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겨우 참가를 허락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리그는 3경기, 유로파 리그 역시 2경기 출전 등에 그쳤다. 하지만 스페인 국왕컵(Copa del Rey)에는 32강부터 8강까지는 전 경기(6경기) 출전하는 등 활약하며 팀의 국왕컵 우승에 일조했다. 마르셀리노 감독은 국왕컵 결승을 앞두고 데니스 체리셰프(29·러시아)의 부상과 곤잘로 게데스(23·포르투칼) 컨디션 난조로 이강인 복귀 카드를 만지작 거렸지만 차출하지 않았다.

소속팀 복귀 걱정을 덜자 이강인은 펄펄 날았다. 지난달 25일 열린 조별리그 첫게임인 포르투갈전에서는 대표팀이 아쉽게 1-0으로 졌다. 하지만 이강인은 자신보다 몸값이 높은 ‘제2의 호날두’ 조타(벤피카), 게드손 페르난데스(벤피카), 트란캉(브라가), 라파엘 레앙(릴) 사이에서 주눅들지 않고 공격적인 재능을 십분 발휘하며 대표팀을 이끌어나갔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멋진 크로스로 오세훈(아산무궁화FC)의 헤딩골을 도우며 이번 대회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9일 세네갈전에서도 경기 시작한 지 1분도 되지 않아 기습적인 중거리슛으로 한국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14분 VAR을 통해 이지솔(대전)이 상대 수비수에 밀려 넘어졌다는 판정으로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고, 키커로 나선 이강인은 왼쪽 구석으로 차넣으며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강인의 이번 대회 첫 득점이었다.

이강인의 왼발은 경기를 좌우했다. 후반 추가 8분에도 이강인은 극적인 왼발 코너킥으로 이지솔의 득점을 도왔다. 연장 전반 6분 이강인은 최전방으로 쇄도하는 조영욱(서울FC)에게 빈 공간으로 길게 ‘킬패스’를 찔러줬다.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조영욱은 지체 없는 슛으로 한국의 3번째 득점을 이끌었다.이강인은 이날 세네갈전 1골 2도움 기록했다. 연장 혈투 속에 체력이 바닥난 이강인은 연장 전반 막판 중앙수비수 김주성(FC서울)과 교체됐다.

활약과 비례해 이강인의 몸값도 오르고 있다. 통계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켓(www.transfermarkt.co.uk)에따르면 이강인의 이적료(추정)는 675만파운드(101억원)로 U-20 월드컵 4강 진출 선수 중 2번째로 몸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이탈리아 주장 안드레아 피나몬티(프로시노네 칼초) 900만파운드(135억원)였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강인에 이어 광주 금호고 출신 김정민(리퍼링) 63만파운드(9억원), 이번 대회 2골을 넣은 조영욱(FC서울) 54만파운드(8억원) 순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8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비엘스코-비아와 경기장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8강 한국과 세네갈전의 경기. 후반 한국 이강인이 비디오 판독(VAR)으로 얻어낸 패널티킥을 골로 연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흐름 바꾼 ‘비디오 판독’…한국이 웃었다

전·후반 5차례, 승부차기 1차례 결정적 순간마다 한국팀에 도움

비디오 판독(VAR)의 묘미가 제대로 드러난 한판 대결이었다.

120분 연장 혈투에 이은 승부차기까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본 VAR는 결과적으로 태극전사들이 36년 만의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4강 진출에도 힘을 보탰다.

경기전·후반 90분 동안에만 5차례 VAR 판정이 이어졌다. 한국은 앞서 일본과 16강전에서는 VAR의 도움을 봤다.

세네갈전 첫 번째 VAR 판정은 태극전사를 웃음 짓게 했다. 한국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14분께 상대 진영 페널티지역에 있던 이지솔(대전)이 세네갈 수비수에 밀려 넘어졌다. 주심이 놓친 반칙 상황은 VAR의 ‘매의 눈’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주심은 모니터로 달려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하지만 후반 27분에는 VAR 판정으로 이재익의 핸드볼 반칙이 발견됐고, 세네갈에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이브라히마 니아네의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키퍼 이광연(강원)이 몸을 날려 막아냈지만 주심은 재차 슛을 선언했다.

이광연은 슈퍼세이브를 펼쳤지만 VAR 판독 결과 니아네의 킥 직전에 미리 몸을 날리는 장면이 포착됐고, 두 번째로 시도한 니아네의 슛은 막지 못했다.

한국은 후반 41분에도 VAR 덕을 봤다. 세네갈의 코너킥 상황에서 한국은 실점했지만 VAR 판독으로 세네갈 선수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돼 골이 무효가 됐고, 태극전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가장 중요한 승부차기 때에도 VAR는 태극전사의 편이었다. 한국은 첫 번째 키커로 나선 김정민(리퍼링)의 슛이 골대를 때리면서 힘겹게 시작했다. 2번 키커 조영욱까지 실축하며 패배의 기운이 엄습한 한국은 골키퍼 이광연이 세네갈의 네 번째 키커의 슛을 막아내 2-2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다. 한국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오세훈(아산)의 슛마저 골키퍼 선방에 막히는 듯했지만 주심은 VAR를 통해 세네갈 골키퍼의 반칙을 선언했다.

결국 다시 슛을 시도한 오세훈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길 수 있었다. /연합뉴스

전반 1골·후반 6골…4강 이끈 정정용의 ‘뒷심 축구’

승부차기 접전 끝에 4강 진출을 확정한 U-20 대표팀 정정용 감독이 두 팔을 들고 주먹을 쥐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비 후역습으로 4강 돌풍 정감독 “한국은 꾸역꾸역 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폴란드 월드컵을 치르는 한국대표팀의 전·후반은 완전 딴판이다.

전반전은 답답해 보일 때가 많다. 잔뜩 웅크린 채로 상대 공세를 받아내는 데 치중하다 보니 일방적으로 밀리는 흐름을 보이기도 한다. 전반에는 유효슈팅 하나 기록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가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여 결국 무릎을 꿇게 한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아프리카 강호 세네갈과의 대회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3-3으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기고 4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를 관통하는 우리 대표팀의 기본 콘셉트가 바로 정 감독이 얘기한 ‘선수비 후역습’이다. 강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 감독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포르투갈,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복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해야 했다. 대표팀은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끌고 와 촘촘한 수비로 공을 빼앗은 뒤 측면과 뒷공간을 노려 전방까지 단번에 치고 올라가 마무리 짓는 전술로 ‘죽음의 조’를 2승 1패, 조 2위로 통과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 뒤에는 체력적인 부분까지 겹치면서 선수비 후역습은 대표팀에 더욱 긴요한 전술이 됐다.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 3차전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간 일본전에서 대표팀은 전반 내내 일본에 압도당했다. 전반전 일본의 볼 점유율은 무려 72%나 됐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표팀은 일본을 결국 1-0으로 눌러 8강행 제물로 삼았다. 정 감독이 ‘8강에 오른 팀 중 최고 강팀’이라고 꼽은 세네갈전에서도 피지컬과 체력 모두 열세였음에도 후반 무서운 뒷심으로 한국축구사에 오래도록 남을 명승부를 연출했다.

정 감독은 자신이 대회 전 약속했던 4강 목표를 달성한 뒤 “우리는 ‘꾸역꾸역 팀’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정용식의 뒷심축구는 이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 나아가 사상 첫 우승 꿈까지 꾸게 한다. /연합뉴스